

# 2017-2018 미국 Union Presbyterian Seminary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신학대학원 신학과 3학년 임광식

## 1. 유니온 신학교 소개

1812년에 설립된 유니온 신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프린스턴 신학교와 함께 미국 장로교회(PSUSA)의 대표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For the Church in the World"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총장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와 저작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인 Brian K. Blount이다. Charlotte NC와 Richmond VA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신학교로서 기능하며(한국에서 오신 장성희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 자주 뵈 수 없지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후자는 메인 캠퍼스로서 조금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Richmond의 메인 캠퍼스에서 수학했다. 현재 110명의 학생들이 리치몬드 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M. Div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학생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대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니온 신학교의 사명과 비전은 아래와 같다.

Union Presbyterian Seminary equips Christian leaders for ministry in the world — a sacred vocation that requires deep learning, commitment to service, and an ability to read culture and circumstance in the light of the rich resources of Scripture and theological tradition.

The seminary's core mission is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by forming and equipping leaders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Eph 4:12*).

## 2. 수업

교환학생의 경우 가을 학기, 봄학기, 그리고 5월학기에 걸쳐 1 Academic Year를 수학하고 졸업하게 된다. 가을과 봄 학기의 경우 최소 9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5월학기는 한 과목을 한달 간 집중적으로 수강한다. 필자가 수강한 수업은 다음과 같다.

학기	수업	교수	학점
2017 Fall Semester	Introduction to Evangelism	John W. Vest	3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Carol L. Schnabl Schweitzer	3
	Introduction to Preaching&Worship	Richard W. Voelz	3
	UPSem Choir	Douglas Brown	0.75
2018 Spring Semester	Faith & Human Development	Cindy L. Kissel-Ito	3
	Pastoral Care Conflict Relation	Kenneth J. Mcfayden	3
	Sacraments: Theology & Practice	Richard W. Voelz	3
	UPSem Choir	Douglas Brown	0.75
2018 May Term	Work with Groups In Church	Charles Brown	3

간단히 세 학기의 수업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주로 실천신학 분야의 수업을 수강했는데 2017 Fall Semester에는 개론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다. Dr. Vest의 수업은 현대 미국교회에서의 전도에 관해 다루었는데 Dinner Church 운동에 관해 많이 다루었다. Dr. Schweitzer의 수업은 이론과 실체가 잘 조화된 수업으로 그녀는 Pastoral Care의 이론에 대해 다루는 한 편 실제 상담 실습을 통해 이론이 실제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필자는 인근의 Senior House에 방문하여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과 수 차례 상담을 하고 Verbatim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치매 환자와의 상담 실습은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목회 상담의 실재를 배웠음은 물론 나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수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Dr. Voelz의 가을학기 수업은 예배설교의 이론과 실제 모두를 다루었다. 한 주에 4시간을 2시간의 강의와 2시간의 세션으로 모였으며 강의시간에 이론을, 세션 시간에 설교의 실재를 다루었다. 한 학기 동안 2회의 설교를 수행 해야 하며 1개의 예배를 기획 하여야 했

다. 설교의 경우 설교의 작성과정을 교수가 처음부터 함께 도왔으며 설교 이후에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음은 물론 교수와 최소 30분의 비디오 세션을 가지며 자신의 설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UPSem Choir에서는 채플 찬양대로서 함께 예배 음악을 준비했다. 영미권의 예배음악은 물론 바흐의 곡을 독일어로 준비하기도 했다. 음악감독인 Doug Brown과 음악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였다.

2018 Spring Semester에는 개론 보다는 각론 위주의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다. Dr. Kissel-Ito의 수업은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발달과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었다. 갈등상황에서의 Pastoral Care에 대해 다루는 Dr. McFayden의 수업은 분노와 갈등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제공했다. Final Project로 분노와 갈등상황에 대해 다루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발표했는데 여러 학생들이 만든 자료들을 공유하며 유용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들은 Dr. Voelz의 성례전 수업은 실제적 측면을 매우 강조한 수업이었다. 순서에 따라 매 수업마다 유아 세례와 성찬을 시연했고 인근 교회의 협조를 구해 침례탕에서 침례예식 집례를 연습하기도 했다. 봄 학기 역시 UPSem Choir에 참여했다.

May Term에 들은 Dr. Brown의 수업은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섬긴 교수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며 교회내의 여러 그룹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수강생 전원이 이 주제에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토론하면서 수업 주제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이론과 각자의 통찰을 나눌 수 있었다.

매 학기의 수강신청 시에는 먼저 자신의 Advisor와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원하는 수업을 웹 페이지의 Self-Ser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gistrar's Office 에서 이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선수과목이 필요한 수업을 듣고 싶은 경우 출국 전 영문 성적표를 지참하면 수강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필자가 수강한 예배/설교학 과목들의 경우 원래 성서학과목들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어있어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었지만 필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들에 관한 인정을 해당과목 교수로부터 받아 2~3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3. 캠퍼스 생활

#### 1)공동체 생활

앞서 언급했듯이 유니온 신학교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을 만큼 공동체의 유대가 강하다. 각기 다른 교단, 심지어 다른 종교전통에서 온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유니온 신학교에서의 배움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매주 수요일에 자율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동체 점심시간은 유니온 신학교의 가장 주요한 공동체 행사이며 이외에도 학교, 학생회, 그리고 개인들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교목은 채플을 준비하는 한편 학생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 크고 작은 모임과 이벤트를 주최하고 학생들에게 Pastoral care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부활주일 전야부터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예배인 Easter-Vigil 과 시험기간에 학교 잔디밭에 작은 동물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이 동물들을 통해 마음에 위안을 얻게 했던 이벤트가 인상 깊었다.

리치몬드 캠퍼스 학생들의 학생회인 RSGA(Richmond Student Government Assembly)는 학교와 학생들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최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섬기는 기구이다. 필자는 International Student's Representative로 Nomination을 받아서 RSGA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유니온 신학교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공동체 생활의 매력이 존재한다. 학업으로 바쁜 신학교 생활이지만 이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교재를 체험할 수 있다. 특별히 필자는 학교 잔디밭에서의 프리즈비, 소그룹 모임(Formation Group)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 2)기숙사 생활

교환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다. 최근 리모델링하여 생활하기에 쾌적한 리치몬드홀 개인실에는 각 방마다 욕실이 딸려있으며 주방은 공유하게 된다. 식사는 리치몬드홀 1층에 있는 학교 카페에서 아침/점심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아침4불, 점심6불 정도-메뉴에 따라 상이) 필자의 경우 카페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로 주방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 편이 가격 면에서 더 저렴했다. 학교 인근

의 식당들도 자주 이용했다. 기숙사 2층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비치되어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세탁소가 있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층 주방에 비상약품이 비치되어있으며 인근에 약국 CVS가 있어서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학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비약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 4. 리치몬드 생활

### 1) 교통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리치몬드에서의 생활은 자가용이 없을 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필자도 차 없이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차가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했고 다소 먼 거리를 가야 할 때 혹은 어두워진 이후에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Uber나 Lyft를 이용했다. 또 유니온 신학교는 국제학생들을 위해 International Student's coordinator를 학생들 가운데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차량운전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coordinator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리치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Coordinator가 마중을 나와서 짐과 함께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국제학생들을 돕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굳이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미국 도시들이 그렇듯이 치안이 좋지 않은 거리도 다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치안

리치몬드는 과거 가장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였지만 최근 치안 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럼에도 총기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여러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 큰 위협이 되지는 않으나 약물 중독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니온 신학교 캠퍼스의 경우 무장 경비가 24시간 순찰을 돌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

지만 때때로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유니온 캠퍼스의 한쪽 면은 Chamberlain Avenue를 접하고 있는데 이 거리로는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조금 음침해 보이는 거리가 있다면 걷거나 자전거로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도 자전거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이발소에 갔다가 권총을 걸고서 드러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친 경험이 있다.

필자가 리치몬드의 치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했을 수 있으나 총기의 자유가 있는 미국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른 대부분의 도시들도 위험한 거리는 위험하다.

### 3) 쇼핑

#### a. 식료품 및 생필품

걸어갈만한 거리에는(15분) CVS(약국 및 편의점)과 작은 유기농 제품 판매점이 있고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Walmart, Kroger, Food lion등의 마트가 있다.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Wegmans가 있는데 다른 마트들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Trader's Joe는 다른 마트들에서 잘 팔지 않는 제품들을 팔기에 매력이 있고 Whole Food는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 b. Mall

Willow lawn이라는 몰이 학교에서 차로 1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하는 쇼핑을 하기 힘들 수 있다. 학교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Short Pump라는 타운이 있고 Short Pump 타운몰이 있는데 이곳에 백화점을 비롯한 몰이 규모 있게 구성되어 있다. Uber나 Lyft 이용시 편도 2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 c. 기타

Cary Town은 각종 가게와 식당들이 모여있는 리치몬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 중에 한 곳이다.

#### 4) 문화생활

리치몬드에서의 생활이 매력적인 큰 이유 중 하나는 갖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풍부한 역사를 지닌 리치몬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 무료로 미술품들을 감상하고 때때로 Jazz 공연을 볼 수 있는 Fine Art Museum등을 이용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리치몬드 주변 도시들도 문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 5) 날씨

한국과 비슷하다. 조금 더 온화한 편이다. 날씨에 변화가 많다. 4월인데 오늘 덥다가 내일 눈이 내린다. 크리스마스에 반 팔을 입어야 할 수도 있다.

### 5. 교환학생 준비과정

#### 1) 교환학생 선발

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교환학생 선발과정이 진행된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의 선발과정이 끝나면 두 학교간 연락이 이루어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을 받기로 결정하면 학교 및 해당학생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하게 된다.

#### 2) 유니온 신학교와의 연락

가장 중요한 F1비자 발급을 위한 I20 서류를 비롯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조율한다. 교환학생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고 Advisor가 정해지면 미리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

#### 3) 비자발급

우편으로 I-20문서를 받은 후 비자발급을 진행한다. 유니온 신학교는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의료보험)을 지급하고 이를 I20에 명시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그리 어렵지 않다.

#### 4) Community of Learning

유니온 신학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온라인 코스를 제공한다. Black Board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론 위주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신학적, 종교적 사고의 다양성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한다.

#### 5) Language and Cultural Immersion Course와 Orientation

국제 학생들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입국하여 1주일간 영어와 문화에 관련한 수업을 미리 듣는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영어수업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 식료품 쇼핑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치몬드 시내와 문화명소들을 방문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다. Instructor 였던 Eileen Breen 과는 이 짧은 코스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고마운 선생님 중 한 분이 Eileen 선생님이셨다.

오리엔테이션은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함께 참석하게 된다. 1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게 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

### 6. 소감

13학기동안 계속된 광나루에서의 배움에 잠시 쉼표를 찍고 리치몬드에서 1년을 보내기로 한 것은 신학교 입학 후 필자가 했던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배울 수 있었다. 좋은 만남들을 가지며 그 가운데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고 학업의 과정 동안 항상 지지해주셨던 존경하는 큰 스승이신 이제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출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신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님과 고은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신 유니온 신학교 장성희 교수님과 이건호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환학생 준비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2014-2015학년도 유니온 신학교 교환학생 이상효 선배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 수고해주신 대외협력처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